

성별	여	나이	43세	직종	교환원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1. 개요

김○○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P병원의 전화교환원으로 일하여 왔으며 약 17년을 왼쪽의 귀로만 전화응대를 하여 2006년 6월부터 왼쪽 귀에서 “웅”하는 소리와 귀가 멍해지며 통증이 있어 K병원에서 외래치료를 하였으나 2010년 3월 다시 증상이 나타나 G병원에서 외래치료 중이다.

2. 작업환경

김○○은 P병원의 콜센터에서 근무를 1993년부터 약 17여년간 하였다. 콜센터는 병원으로 오는 상담전화를 담당하는 업무로, 각 책상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있으며, 칸막이로 구분되어있다. 근무자들은 왼쪽 귀로 듣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, 각 헤드셋의 볼륨은 개인의 선호 음량에 따라 조절하도록 되어있다. 작업환경측정결과 헤드셋 내 소음은 73.4 - 85.4 dB(A)이었으며, 배경소음은 56.4 - 59.6 dB(A)이었다. 교환실의 소음은 57.2 dB(A)이었다. 배경소음은 85 dB(A)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.

3. 의학적 소견

약 17년을 왼쪽의 귀로만 전화응대를 하여 2006년 6월부터 왼쪽 귀에서 “웅”하는 소리와 귀가 멍해지면서 통증이 있어 이명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. 2010년 3월 다시 증상이 나타나 G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외래치료 중이다. 사고력이나 당뇨, 고혈압 등의 질병력은 없다.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.

4. 결론

김○○의 감각신경성 난청은

- 지속적으로 헤드셋을 통해 상담하는 업무를 하였지만 소음정도가 난청을 유발시킬 소음은 아니었으며,
-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으나, 저음역에서 경도의 난청(양측)을 보이고 있어, 업무와 관련된 요인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.